민주 전당대회 12월 이후로 가닥

정기국회 상황따라 내년 1월로 늦출 수도

개최시기 놓고 주-비주류 벌써부터 신경전

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정기국회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르면 12월 중순께, 늦어지면 1월 중순에나 개최될 전망이며 이를 둘러싸고 당내 주류 및 비주류 간의 신경전도 본격 점화하고 있다.

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전당대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순 이후나 내년 1월에 전대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회기 내에 마무리되면 12월 중 전대를 개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안과 예산안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전대를 1월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12월 이후 전대 개최로 방향을 잡은 것은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 기간에 전대를 열 경우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정기국회 기간 여당과의 입법투쟁에 필요한 소속의원들의 대오를 유지하려면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 전대를 개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쟁점법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12월말까지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도 감안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회기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여야의 충돌 없이 정기국회가 마무리 된다 해도 전국 순회 연설회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무리 빨라도 12월 중순에나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문제 등 쟁점 법안이 즐비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 등으로 여야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어 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는 1월 중순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손학규 대표의 12월17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대 시기가 1월로 미뤄질 경우, 대표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싸고 당내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는 대표직의 조기 사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표 프리미엄'의 갖고 있는 손 대표 측이 '정기국회 이후 전당대회 개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눈총을 보내고 있다. 손 대표가 전당대회 이전 확고한 당내 기반을 구축, 대권가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야권 통합은 이미 차기 대표의 과제가 됐다는 점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출석 불응 검사 6명 고발키로

저축銀 국조특위, 성영훈 광주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검찰측 기관 증인 6명을 고발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다시 구성, 검찰 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와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회가 고발한 대상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관증인들은 전원 동행명령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6명을 불출석의 죄,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증인 6명은 기관보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고발조치를 의결한 뒤 "이번 불출석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조사 위원회 이름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2003년 국정감사 이후 8년 만이고, 현직 검찰 기관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재진 법무 오늘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권 내정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당시 여당 의원들이 법무장관에 기용돼 지방선거를 관리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권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02년 9월~2004년 12월 산업기능요원으로 경기도 포천의 K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돼있지만, 그가 자택인 대치동에서 포천까지 출퇴근해야 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 내정자와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정현 "국회 불출석 '솜방망이' 처벌"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도 검찰의 처벌이 미미해 국회 업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처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이뤄진 고발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44건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올해 6월 현재 44건 등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 중 59건으로 48%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4건 중 10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특히 고발 사건 211건 중 절반이 넘는 55.5%인 117건에 대해 혐의없음(63건), 각하(22건), 기소유예(17건)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86건 중에서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6.7%(23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초중 무상급식 법제화 추진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6일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골자로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 1조404억원을 비롯해 2016년까지 5년 간 모두 7조732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재성, 등록금 25% 장학금 사용 추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6일 대학이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학년도에 전교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고 이 중 성적에 따라 배분되는 장학금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등록금 인하·민생예산 등 쟁점현안 산적

여야 8월국회도 순탄치 않다

'한진重 청문회' 17일 개최·사법개혁특위 재구성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했지만 쟁점현안이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3일, 29일,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오는 17일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열고 교섭단체별로 4명씩, 8명으로 사법개혁특위를 재구성키로 했다.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 법안을 8월 중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인권법 등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합의된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와 대학등록금 법안 처리 등을 놓고도 추가 협상 과정에서 여야 견해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와 관련, 한나라당은 8월 국회 상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10+2 재재협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도 처리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요구한 것을 한나라당이 수용해 오는 17일 열리게 됐으나 증인 채택 문제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 5당은 이 회사 조남호 회장의 증인 출석이 이뤄져야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200여일째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 중인 민주노동당 김진숙 지도위원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등록금 인하 방법 및 대학구조조정법안 처리 여부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소득에 연계한 단계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도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어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인 반면 민주당은 8월 국회 회기 중 추경을 편성해 수해 복구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특위 재가동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출석을 거부한 검찰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7일 "(검찰총장) 청문회 말미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중수부 폐지와 특수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저축은행 국조특위에서 검찰이 기관보고를 거부했다"며 "이런 것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임야:470,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약초 재배단지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대 지 : 250평(30×8코너)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급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 8, 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수기동 [12층관광호텔]	신안동[4층근린시설]	풍암동 [원룸]	일곡동[원룸]	목포해안동 [모텔]	담양금성[온천]	계림동[의료시설]
대1846m2,건7642m2	대385m2,건1191m2	대201m2,건465m2	대199m2,건345m2	대830m2,건2767m2	대93527m2,건10821m2	대837m2,건4084m2
감정가 90억	감정가 8억8천	감정가 3억7천	감정가 3억1천	감정가 25억2천	감정가 156억8천	감정가 32억1천
최저가 50억	최저가 3억9천	최저가 2억6천	최저가 2억2천	최저가 11억3천	최저가 109억7천	최저가 14억4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광주옥동 공장 ☜	☞ 해남 땅끝콘도 ☜	☞ 전주 의약물류센터 ☜	☞ 청주 사우나 주차빌딩 ☜
▷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건물879평 ▷감정가 15억7천 ▷매매가 9억 (협의후결정)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5억 (협의후결정)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정가 85억5천 ▷매매가 65억(협의후결정)	▷대지 402평 ▷건물 3727평 ▷감정가 92억6천 ▷매매가 33억(협의후결정)
☞ 곡성석곡 공장 ☜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 용인 골프레저타운 ☜	☞ 남원 공장부지 ☜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 44억3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대지 29917평 ▷건물 4575평 ▷감정가 713억4천 ▷매매가 250억 (협의후결정)	▷대지 2460평 ▷건물 1013평 ▷감정가 21억3천 ▷매매가 10억 (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김태호전무이사 011-684-3886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두암동	대261,건259	3억7천	2억6백	주택및2층건물
풍암동	대201,건140	3억7천	2억6천	3층원룸16실
농성동	대126,건342	2억1천	1억4천	3층근린건물
두암동	대622,건991	6억2천	2억8천	4층근린시설
광천동	대239,건526	4억5천	3억2천	원룸14,쓰리룸1
일곡동	대199,건345	3억1천	2억2천	원룸12실
신안동	대385,건1191	8억8천	3억9천	4층근린시설
계림동	대228,건903	6억6천	3억7천	4층오피스텔
쌍촌동	대200,건377	2억5천	1억7천	다가구5가구
지산동	대668,건118	1억5천	6천7백	2층근린시설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함평군	대1918,건2039	23억	10억4천	4층무인텔
농성동	대221,건732	5억9천	3억3천	5층모텔
학동	대293,건772	6억	2억6천	5층모텔
대인동	대272,건673	3억7천	2억1천	5층모텔
백운동	대272,건1030	7억5천	4억2천	5층모텔
봉선동	대171,건663	20억	8억9천	1층일부
쌍암동	대241,건690	9억	4억	3층일부
금호동	대126,건206	5억	1억7천	6층일부
서석동	대156,건313	2억5천	1억1천	지하1층
도산동	대334,건6552	2억3천	1억4천	사무실,창고

공장/토지 정이사 010-5879-000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옥동	대1699,건1463	7억	4억9천	2층공장
나주세지	대73583,건27683	79억	28억	2층공장
장성삼계	대17304,건2982	18억	13억	단층공장
양산동	대5906,건5048	35억	24억	단층공장
담양금성	대4284,건2720	14억	5억9천	단층공장
신안압해	임10314	1억8천	1억	일반공업
함평대동	대27849	7억	3억9천	감나무과수원
궁동	대189	1억3천	7천5백	대지
선교동	대526	2억	7천1백	대지
여수돌산	임21231	7억	1억2천	임야

아파트/빌라 양준혁팀장 010-3171-6536 주택/재개발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정이사 010-5879-0005

병원,교회,사옥,모텔,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부동산경매전문가(실전)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8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